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1.29(금) ~ 2024.12.5(목)

제공일시 2024 12 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1.29(금) ~ 2024.12.5(목)

제공일시 2024 12 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美,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발표... 한국산 HBM도 적용

-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함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힘
-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s, FDPR)을 적용함. 이로 인해 미국의 동맹국 반도체 장비업체가 다른 나라에서 만든 장비도 중국에 보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음

[\(중앙일보 2024.12.2\)](#)

2. 中,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 美수출 통제... 美 반도체 제재에 보복

- 중국이 3일부터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밝힘
-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와 문답 형식의 글을 통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함. 다만, “중국은 수출통제 분야에서 관련 국가 및 지역과 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함
-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 하루 만에 나옴

[\(연합뉴스 2024.12.3\)](#)

3. EU, 대규모 산림전용방지법 1년 연기... 일부 반대에 굴복

- 유럽연합(EU)은 4일 전 세계 몇몇 생산국들 및 EU 내 일부 국가의 반대에 굴복, 대규모 산림전용으로 이어지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의 도입을 1년 연기하기로 합의함
- 새 규정은 당초 이 달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관계자들은 EU 회원국, EU 의회, 집행위원회가 새 규정 발효를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훨씬 약화시킬 것인지를 놓고 몇 주 간 논쟁한 끝에 원칙적으로 연기에 합의했다고 말함
- 1년 연기로 산림전용방지법은 대기업의 경우 2025년 12월 30일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뉴시스 2024.12.4\)](#)

국내 정책

1. 한-포르투갈 경제공동위... 배터리·해상풍력 협력 확대 논의

- 한국과 포르투갈 정부가 29일(현지시간) 배터리, 해상풍력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제7차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주앙 페헤이라 포르투갈 경제부 차관과 만나 양국의 경제안보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교역·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양측은 EU에서 최대 리튬 매장량을 보유한 포르투갈과 세계적 배터리 기업을 보유한 한국간 협력 여지가 크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협력 방안을 모색기로 함. 또한 해상풍력 선도 국가인 포르투갈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함

[\(이데일리 2024.11.30\)](#)

2. 새해 범정부 기술침해 분쟁 원스톱 지원 플랫폼 나온다

- 중소·벤처기업 대상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가동됨. 기술침해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부처가 협력해 분쟁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첫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 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내년 1월 중 구축하고, 1분기 중 가동이 목표임
- 방식은 현재 중기부가 서비스하는 플랫폼 '기술보호울타리'를 고도화하는 방식임
- 핵심은 확장성 및 통합임. 중기부는 내년 1월 중 구축될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에서 중기부는 물론 특허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를 진행하는 핵심 기관까지 연계·협력하는 형태로 단계적 고도화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짐

[\(전자신문 2024.12.1\)](#)

3. 'AI 기본법' 제정 초읽기... "합성물 추적 제한, 기술 지원 필요"

- AI 산업 지원과 규제 방안을 명시한 'AI 기본법'이 제정까지 관문 2개만 남겨두고 있음.
-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업계는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법안의 골자인 AI 워터마크 삽입 조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함
- 모든 기업이 개별적으로 AI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제작자를 추적하기에는 기술적 제약이 있고, 비가시적 워터마크 삽입을 허용한 일부 표현물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임
- AI 기본법은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고영향 AI 정의와 사업자 책임 강화 △국내 대리인 지정 △정부·민간 위원회 설치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골자로 함

[\(뉴스1 2024.12.1\)](#)

글로벌 기업

1. AI 전력난에… 메타, 2030년대 초 목표로 원전에너지 개발추진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AI 개발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추진함
- 3일(현지시각) 메타는 “우리가 AI 혁신과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원자력 에너지 개발자를 찾기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공개한다”고 밝힘
- 회사 측은 이번 원자력 개발을 통해 2030년대 초부터 1-4GW의 신규 원자력 발전 용량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조선비즈 2024.12.4\)](#)

2. 남미 가는 BYD, 브라질 공장서 전기차 생산 착수

- 중국 친환경차 기업 BYD가 남미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생산기지를 내년 초 가동함
- 3일 중국 언론 평황왕치처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가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BYD가 2025년 3월 브라질에서 친환경 차량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힘. 3월 전 첫 전기차 생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 BYD 측은 이 브라질 공장이 중국 이외 국가 최대 규모의 첨단 전기차 생산 공장이 될 것이며, 내년 말이면 연간 15만대, 2026년 말에는 연간 30만대 자동차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지디넷코리아 2024.12.4\)](#)

3. 노스볼트 파산에 유럽 최대 리튬공장 무산… SK에코플랜트 불똥

- 스웨덴 배터리 제조 기업 노스볼트와 포르투갈 에너지 종합기업 갈프가 공동 추진했던 유럽 최대 리튬 합작 공장 설립 계획이 결국 무산됨. 노스볼트의 파산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관련 업계에 여파가 확산하고 있음
- 싱가포르 자회사를 통해 갈프와 협력하며 폐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 확대와 남유럽 거점 확보를 목표로 한 SK에코플랜트 역시 이번 사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더구루 2024.12.2\)](#)

4. 아다니 그룹 회장 기소로 인도 기업 지배구조 신뢰 추락

- 아시아 제2위 부호이자 인도 아다니 그룹의 설립자 가우탐 아다니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된 이후, 인도 기업 전반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음
- 특히, 이번 사태는 지난해 힌덴버그 리서치의 재무 부정 의혹 제기로 1300억달러(약 183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데 이어 발생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2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함

[\(글로벌이코노믹 2024.12.3\)](#)

국내 기업

1. LG엔솔 GM과 각형배터리 공동개발... 미국 배터리 공장도 인수

-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모터스(GM)와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LG엔솔은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각형 배터리는 향후 GM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밝힘
- LG엔솔의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 공식화는 이번이 처음임. 이로써 LG엔솔은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을 아우르는 3대 배터리 형태를 포트폴리오로 갖추게 됨
- 한편, LG엔솔은 GM과 합작 투자해 미국 미시간주에 건립 중이던 배터리 공장을 인수하기로 함. 인수가 이뤄지면 LG엔솔은 3공장을 북미 주요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임

[\(MBC뉴스 2024.12.3\)](#)

2. SK온-포드, 합작법인 1공장 가동 목전... AMPC 공유 비중 확대

- SK온과 포드가 미국에 세운 합작법인 블루오벌SK(이하 BOSK)의 켄터키 1공장이 가동을 눈앞에 둠
- 이 공장이 내년 상반기 중 SK온 독자 공장의 물량을 일부 이관 받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포드의 첨단제조생산사세액공제(AMPC)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최근 BOSK 켄터키 1공장의 초기 가동을 위한 설비 설치를 끝마침

[\(디지털데일리 2024.12.2\)](#)

3. 코오롱인더 'PET 재생', 세계 최대 포장재 기업 암코어 뚫었다... 사업 파트너 '낙점'

- 세계 최대 포장재 기업 호주 암코어가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 파트너로 코오롱인더스트리를 택함
- 코오롱인더스트리로부터 기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를 대체할 친환경 소재를 공급받아 패키징 솔루션에 적용함
- 한성수 코오롱인더스트리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암코어와의 협업은 보다 지속 가능한 제품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패키징의 순환 경계를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더구루 2024.11.29\)](#)

4. 포스코홀딩스, 국내 수산화리튬 공장 종합준공... 'EV 100만대 물량'

-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이 전남 울촌산업단지에 광석 기반 수산화리튬 제2공장을 준공했다고 29일 밝힘
-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지난해 11월 제1공장 준공 후 1년 만에 제2공장을 준공, 총 연산 4만3000톤 규모의 리튬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됨. 이는 전기차 약 1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

[\(머니투데이 2024.11.29\)](#)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11.29(금) ~ 2024.12.5(목)

제공일시 2024.12.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영국, 탄소배출권 해양으로 확대... 캡처라, 2026년 직접해양포집 시작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는 현재 주로 육지에서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이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 발전소, 제조업, 운송, 농업과 같이 육지 기반 산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임

- 국제 해운과 어업 등은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글로벌 기구가 관리하기 때문에 한 국가나 지역의 ETS 적용이 어려웠음. 그러나 얼마 전부터 해양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음. 일부 정책과 논의 또한 진행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 1월 1일 EU는 ETS를 개혁하면서 해상 부문을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현재 EU의 탄소배출권에는 총 톤수가 5000톤 이상인 화물선과 여객선에 탄소배출권 구매가 의무화되어 있음

- 영국 탄소배출권(ETS) 주관 기관 운영자들 또한 2026년부터 해운 부문을 포함하도록 제도 범위를 확대하기 원한다고 환경미디어 에디(Edie)가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EU 탈퇴 이후 2021년부터 독자적인 배출권거래제 UK-ETS를 운영해 왔음. 현재 항공, 전력, 산업 부문을 포함하고 있음

- 영국의 탄소배출권은 정부가 기업별 배출량의 상한선을 정하고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들은 이 기준에 따라 남는 배출권은 팔고 필요한 만큼은 사는 캡앤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을 따르고 있음

- 영국 ETS 기관은 해당 제도를 해상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음. 이들은 이 제도가 국내 항해의 정의부터 배출량, 해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ETS 적용 범위 등을 공개적으로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음. 해운업계, 비정부기구(NGO), 학계,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응답자는 2025년 1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보낼 수 있음

- 영국 배출권 거래 제도 기관 장관인 사라 존스 의원을 비롯해 MSP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 협의는 기업을 비즈니스에 참여시키고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친환경 미래로 전환함에 따라 배출량을 줄이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음. 이어 “영국 ETS를 해상 운송까지 확대하고 탄소 포집 및 저장을 위해 파이프라인이 아닌 운송 수단 포함하도록 확대하면, 영국의 중요한 성장 산업인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영국의 ETS는 2028년부터 폐기물 에너지와 폐기물 소각 부문까지 확대하려는 계획도 진행 중에 있음. 이러한 계획은 이번 7월 총선 전에 제안되었음. ETS 기관은 해상 배출 협의를 개시하는 것 외에도 포집된 탄소를 해운, 도로 또는 철도를 이용해 운송하는 것 또한 인정하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음. 이렇게 되면 CO2를 저장하는 배출자는 성공적으로 포집한 CO2에 대해 탄소 가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됨

-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달 티사이드(Teesside)와 머지사이드(Merseyside)의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클러스터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음. 이는 25년 동안 총 217억파운드(약 38조4250억원)에 달하는 CCUS 및 수소 산업 지원 패키지의 일부임. 두 프로젝트가 완전히 가동되면 연간 850만 톤의 CO2를 포집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영국 정부는 밝혔음

- 한편, 미국의 스타트업 캡처라(Captura)는 2026년 초에 해수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닷케이 아시아와 포브스가 보도했음. 캡처라의 기술은 재생가능한 전기와 바닷물만으로 탄소를 포획하는 전기투석 공정(electrodialysis)에 기반함. 캡처라는 올해 4월까지 일본항공(JAL),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에퀴노르(Equinor) 등을 포함한 유명 기업으로부터 4539만달러(약 635억원) 투자를 유치한 바 있음

- 캡처라의 설계에는 바다에 떠다니는 공장을 세우는 것이 포함됨. 이 공장은 전기 투석을 사용하여 해수의 일부를 산으로 전환한 다음 해수와 혼합하여 탄산화함. 탄산수는 여과막을 통과하여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방식을 이용함

- 이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직접공기포집(DAC)과 달리 직접해양포집(DOC) 범주에 속함. MIT와 싱가포르 정부와 같은 기관도 해양을 세계 최대의 탄소 흡수원으로 인식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 캡처라는 현재 탄소 포집 비용의 반에 해당하는 톤당 100달러(약 14만원)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내년에 캡처라는 하와이에서 새로운 대규모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며, 연간 1000톤의 CO2를 포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집된 CO2는 음료 제조업체와 양식업체에 판매될 예정임

[\(임팩트온 2024.12.2\)](#)